

# 경기도의 힘

Which means the Strength of Gyeonggi Province

## Him of Gyeonggi-do

2010. 05. 01 - 08. 22  
주최 : 경기도미술관  
주관 : 경기도미술관, 한국미협 경기도지회

2010 Gyeonggi Art Project

## 차례

---

004	인사말 _ 김홍희 경기도미술관 관장
006	경기, 인터로컬의 플랫폼 _ 김종길 / 학예연구사
018	경기 아트 맵 구현을 위한 전시 공간연출과 작가들, 아카이브
020	경기 북부
036	경기 서부
084	경기 동부
110	경기 남부
154	경기 +
158	경기대안공간네트워크
174	작가약력
198	작품목록

020-035	<b>북</b>	구본주 / 김병철 / 믹스라이스 / 박불뚱 / 박이창식 / 박준식 / 배형경 / 송필 / 신동희 / 양화선 / 이삿별 / 임승오 / 정호양 / 조성묵
036-083	<b>서</b>	고경호 / 고산급 / 권석만 / 김상구 / 김상균 / 김석환 / 김영수B / 김와곤 / 김유섭 / 김재석 / 김친일 / 김홍식 / 박은태 / 설총식 / 손장섭 / 신성희 / 신원재 / 심정수 / 안재홍 / 양정수 / 오상욱 / 윤석남 / 이상수 / 이수홍 / 이원석 / 이윤기 / 이인 / 이인철 / 이형우 / 임승천 / 전신덕 / 정문규 / 정현 / 조강훈 / 주재환 / 차현주 / 최문수 / 최승호 / 하종현 / 허재 / 호문기 / 홍선웅 / 홍성담 / 홍순명 / 홍오봉
084-109	<b>동</b>	김근중 / 김범석 / 김선우 / 김영원 / 김용익 / 김인순 / 김일해 / 김태현 / 나종희 / 민정기 / 박승모 / 송용민 / 송창 / 신광욱 / 양원종 / 이동표 / 이영섭 / 이재효 / 이종빈 / 정하응 / 최경태 / 최석운 / 최태훈 /
110-153	<b>남</b>	강경구 / 강상중 / 공기평 / 구본창 / 권용택 / 김건주 / 김도균 / 김억 / 김영수A / 김재홍 / 김학두 / 김해심 / 남경민 / 남궁원 / 류연복 / 박득순 / 박용국 / 서정국 / 성동훈 / 슈룸 (김성배, 도병훈, 이윤숙) / 신제남 / 원인종 / 이강은 / 이관우 / 이윤엽 / 이재삼 / 이종근 / 이홍덕 / 임근우 / 장혜홍 / 전원길 / 정복수 / 정정엽 / 제정자 / 차기울 / 최예태 / 최정미 / 한운성 / 한진섭 / 홍명섭 / 황은화 /
154-157	<b>경기+</b>	박찬경 / 정재철
158-173	<b>신진 작가</b>	다발킴 / 백승혜 / 임선이 / 김성수 / 이재환 / 김동규 / 박장근 / 이종미 / 김지훈 / 나점수 / 김월식 / 이미화 / 이민 / 이종균

---

## 인사말

경기도미술관은 2010년 경기미술프로젝트로 <경기도의 힘>전을 개최합니다. 경기미술프로젝트는 경기도의 문화 전통을 현대화, 세계화 시키려는 목표 하에 경기도의 정치·사회·문화적 이슈를 화두로 삼는 연례기획전입니다.

경기도는 역사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유산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성호 이익, 표암 강세황, 단원 김홍도를 비롯해 근대의 나혜석의 문화적 업적은 경기도민의 자랑거리일 뿐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은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경기현대미술의 발전과 도약을 모색하며 21세기형 미래지향적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다수 박물관과 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와 대안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수부도시인 수원을 비롯해 신도시 일산과 고양, 파주 그리고 양평, 의정부, 포천, 김포, 화성, 안양, 안산, 평택, 안성 등지에서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의 기대속에서 경기도는 예술창작의 산실, 창조적 영감의 보고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작가들에게 전시와 창작의 환경, 소통과 참여의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도립미술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 개최되는 <경기도의 힘>전은 지금/여기의 역동적인 미술 현장에 개입하고 지역과 지역, 작가와 작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단원 김홍도의 영인본부터 경기도의 원로작가, 중견작가, 대안공간 배경의 신진작가를 아우르는 ‘아트 맵’을 통해 경기도 미술의 위상과 현황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본 전시는 한국미협경기도지회와의 공동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양기관의 공동 연구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초대된 작가들의 작품과 수집된 아카이브 자료들이 경기도 특유의 ‘아트 맵’을 구성하며 경기도 미술의 실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힘’ 일수도, ‘허’ 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무엇이 경기미술의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도 말해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시는 경기도미술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적 방향을 제시할 테스트그라운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전시를 시발로 경기도미술관은 작가 연구와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과 세계의 만남, 전문성과 대중성의 결합이라는 미술관 비전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해 5월부터 추진위원으로 활동해주신 경기도지회 집행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발족한 경기대안공간네트워크 관계자, 단원 김홍도 영인본 작품을 대여해 주신 안산시와 단원미술전시관, 그리고 소집단 자료 제공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시에 참여해 주신 150여 명의 작가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김홍희  
경기도미술관 관장

## Greetings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presents *Him of Gyeonggi-do* which means strength of Gyeonggi Province, for Gyeonggi Art Project in 2010. The Gyeonggi Art Project annually features critical issues encompassing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in Gyeonggi Province for the purpose of modernizing and globalizing cultural heritage of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e is affluent i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and assets. The cultural legacies not only by Chusa Kim Jeong-hui, Dasan Jeong Yak-yong, Seongho Lee Ik, Pyeom Kang Se-hwang, Danwon Kim Hong-do, but also by Na Hye-seok of modern times have created pride and value for the Gyeonggi province residents as well as spiritual nourishmen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ontemporary art, in and out of the region. Based on this heritage, we gear toward a future-oriented art museum for the 21st century by discovering developments and breakthroughs in Gyeonggi contemporary art.

At present, there are many artists who work for a number of museums, creation studios, and alternative spaces in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e serves as an incubator for art creation, and a repository for creative inspiration out of expectations of the great number of artists working in Suwon- a city in control of water-, Ilsan, Goyang, Paju, Yangpyeong, Uijeongbu, Pocheon, Kimpo, Hwaseong, Anyang, Ansan, Pyeongtaek, Anseong, and etc. It is in Gyeonggi Province that the artist and its art are positioned to form and develop what is considered to be art of the future.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shall strive to bring into actuality the function and role as a Provincial art museum by providing environments of exhibition and creation, and conditions for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o the artists through a variety of programs.

*Him of Gyeonggi-do*, to be held in 2010 professes to realize the significance of intervening dynamic art scene of here and now, and building up networks among regions and artists. It will envision current status and predisposition of Gyeonggi art through an art map that ranges from photographic editions of Danwon Kim Hong-do to senior artists, middle-aged leading artists, and emerging artists based on alternative space.

This exhibition was co-organized with Gyeonggi Branch of Korean Fine Art Association. The works of invited artists and the archives collected through a collaborative study and debate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for the last year will comprise the Gyeonggi specific art map, and will reveal the real prestige of Gyeonggi art. This event may embark a new beginning and dimension for the Gyeonggi province to be either powerful or frail in its standing as a haven for art. In addition, this event will put in the picture, which are the strong points and which are the weak points in Gyeonggi Art. For this reason, this exhibi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 test ground for checking current status quo of Gyeonggi art and suggesting futuristic direction.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in the commencement of this exhibition, will keep travelling and discovering ways for artists to grow and develop, thereby moving one step forward to our vision of realizing the philosophy to combine professionalism and popularity, and localism and globalism.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gratitude to the people who gave their unparalleled help and support to make this exhibition happen. I am deeply grateful to the execution team of the Gyeonggi Branch, for working you as a member of the relevant committee since May last year, the concerned people of Gyeonggi Alternative Space Network which launched for the opening of this exhibit, Ansan city and Danwon Art Exhibition Hall that rented us photographic editions of Danwon Kim Hong-do, and the contributors of information of small groups. Finally, I am thankful for the more than 150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is exhibition.

**Kim Hong-hee**  
Directo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 경기, 인터로컬의 플랫폼

## : 지역, 지역성, 그리고 지역미술을 가로지르기

김종길 / 학예연구사

‘경기미술프로젝트’는 경기도미술관이 경기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체성의 테제를 미학적 이슈로 전환해 기획하는 정기연례전이다. 첫 프로젝트 <경기, 1번국도>(2007)는 ‘국도’의 현장을 통해 신도시, 산업화 그리고 분단의 문제를 사회/인문학적 관점에서 투영한 전시였고, <언니가 돌아왔다>(2008)는 근대의 나혜석과 현대의 윤석남을 두 축으로 경기 여성주의 미술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서 21세기 여성주의 담론을 새롭게 제안하는 전시였으며, <세라믹스-클라이맥스>(2009)는 도자기의 전통을 현대화하면서 현대미술의 재료material로 재탄생시킨 ‘현대조형도자’ 전시였다. 올해 기획된 <경기도의 힘>은 그런 취지로 기획되는 네 번째 경기미술프로젝트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힘>은 이전 전시들과 달리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 번의 전시가 내용(작품)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시는 내용의 주체(작가)와 그들의 지역적 현장성을 겨냥했다.

경기도는 서른한 개 시군으로 형성되어 있고, 많은 예술가들이 시군의 곳곳에 등지를 틀고 있다.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작가들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타지에서 유입된 작가들이 더 많고, 더군다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타 지역의 미술가들이 경기도에 정착 또는 거주하는 이유는 수도권이라는 ‘중앙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서울을 에두르고 있는 지형학적 특성상 작품발표의 기회와 활동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 개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서울에 비해 작업실 임차료가 저렴하고 장소에 따라선 교통이 원활하며, 어떤 곳은 자연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양평의 서종이나 일산, 파주, 안성의 경우처럼 예술가들이 집단으로 창작촌을 이루고 있으니 작업환경으로선 최고의 입지가 아닌가! 경기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이러한 지역적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지역성이기도 하다.

참고로 ‘경기京畿’의 별칭인 ‘기전畿甸’은 왕궁이 있는 사대문으로부터 사방 5백리 이내를 말하는데, 이는 경기도가 수도 서울의 전방위적 요충지이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함의한다. ‘경기’라는 명칭의 지방 행정조직이 편제된 때는 고려시대로 995년(고려 성종14) 개경 주변에 여섯 개의 적현赤縣과 일곱 개의 기현畿縣이 설치되었는데, 1018년(고려 현종9)에 이들 적현, 기현을 묶어 왕도의 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라 부른 데서 기인한다. 올해로 ‘경기’라 호명 된지 992년이 된다.

### 경기도의 지역적 특징

경기도는 동서남북의 지형학적 위치에 따라 독특한 지역적 성향을 가진다. 예컨대 경기 북부의 경우 고구려의 옛 영토였기에 유물/유적지가 다량 소재하고 있고(백제의 유적 또한 적지 않다), DMZ에 인접할수록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또한 많으며, 산세가 높지 않으나 험하다. 예술가들은 의정부와 동두천, 고양, 파주에 흩어져 있고 그 중 파주와 고양에 밀집되어 있다. 파주와 고양은 서울과 지리상으로 가깝고,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다. 파주 헤이리의 예술마을은 ‘예술지구’로 지정되었고 고양시 일산의 구산동 일대 작가들은 몇 해 동안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다. <포천아시아미술제>를 개최한 바 있던 포천은 현재 폐채석장을 ‘포천아트밸리’로 탈바꿈시키면서 예술도시의 꿈을 현실로 옮기고 있다.

경기 동부는 강원도와 인접하여 자연이 수려하고 곳곳에 작은 평야지대가 있으며 옛 전통문화가 잘 남아있다. 양평은 지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예술가들이 작업하기에 많은 이점을 가진다. 양평의 서쪽은 서울에 가깝고 동쪽은 강원도와 붙어서 내륙 깊숙이 들어가며, 북한강과 남한강이 북남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 풍광이 뛰어나고 그만큼 공기가 좋다.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고집하는 이유일 터인데, 1980년대 후반부터 다종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들더니, 현재 그 수가 삼천여 명에 이른다. 여주 이천 광주는 예부터 쌀이 좋고 도자기가 오래되었다. 그 지역의 토양이 좋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조소예술가들이 모여든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경기 남부의 도시들은 국도를 따라 형성되었기에 대부분 상업도시이며 규모가 크다. 현재도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수원 오산 용인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인구유입도 지속적이다. 그 중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정치, 문화의 중심을 이뤄왔다. 수원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조가 세운 ‘수원화성’이 한 몫 할 것이다. 도시의 역사가 깊고, 화성의 유래가 넓어 문단(문학계)과 화단(미술계)의 형성도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대 중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의 결성과는 무관하지 않고, 이후로 크고 작은 소집단들이 생멸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그 활동이 왕성하게 펼쳐졌던 것이다.

경기 서부의 도시들은 서해와 맞닿아 있어 ‘경계지’로서의 성격이 짙다. 인천은 1981년에 인천직할시로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 경기도의 영토였다(사실, 서울 또한 1946년에 서울특별시유치로 승격되어 분리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서울시’였다. 서울이 분리되기 전까지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포괄하는 한반도의 중심이었다). 경기 현대미술의 역사를 되짚기 위해서는 1981년 이전의 인천미술을 경기도와 엮어야 한다. 강화도와 김포, 시흥, 안산, 화성은 도시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각각 그 활용의 범주가 달랐다. 강화와 김포는 인천의 북쪽에 위치하고 북한에 근접하여 도시화가 늦어진 반면, 시흥과 안산, 화성은 서해 인접도시의 강점을 살려 공단, 산업도시로 성장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면서 다문화 도시가 되었다. 강화와 인천은 근대기의 개항이었고 일찍부터 서구와의 접촉이 많아 실질적인 문화유입의 통로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그렇다. 내륙과 달리 동아시아 또는 세계를 향한 지적 담론의 생산과 실천을 꿈꾸고, 지역 문화운동이 활발한 것은 그런 지역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인터로컬의 경우지, 경기지역

해방이후 경기도는 마치 ‘아메바운동amoeboid movement’을 하듯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다. 식민지 근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이 가동되자 수도권은 새로운 지형도를 짜야 했고, 그 판도는 3~4년을 주기로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세밀한 내용까지 적용하여 경기지도의 변화과정을 기록한다면, 60여년의 경기도는 다분열 증식을 보이는 아메바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의 분리, 서해만 간척,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확장, 산업지대 개발, 도로 개통 등은 굵직한 지형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60여 년 동안 이뤄진 경기도의 지각변동은 다음과 같다.

1946년 9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유치로 승격, 분리되었고, 1949년 8월 고양군 중흥면, 덕도면, 은평면과 시흥군 동면 중 구로리, 도림리, 반대방리가 서울특별시(현재의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중랑구 광진구 종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일부 송파구 일부)에 편입되었고, 같은 해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었고, 1963년 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시흥군 중 일부 지역과 부천군 오정면의 일부가 서울특별시(현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 편입되었고, 같은 해 의정부시가 양주군에서 분리 신설되었고,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 작약도가 인천시 관할로 이관되었고, 1967년 도청 이전으로 도청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수원으로 이전되었고, 1973년 7월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리, 진관내리 및 진관외리가 서울시 서대문구(현재 은평구)로 편입되었고, 그 해에 성남시(옛 광주군의 돌마면, 낙생면과 중부면, 대왕면의 일부)가 광주군에서, 안양시가 시흥군에서 분리 신설되었고, 같은 해 부천군 소사면을 부천시로 승격시키고 소래면은 시흥군으로, 계양면과 오정면은 김포군으로, 영종면 북도면 용유면 덕적면 영흥면 대부분은 용진군으로 이관되어 부천군은 폐지되었고, 1980년 양주군의 일부가 남양주군으로 분리 신설되었고, 1981년 7월 인천시 일원을 관할로 인천직할시가 설치되어 경기도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같은 해 광명시(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 분리)가 시흥군에서, 동두천시(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로 승격 분리)가 양주군에서 분리 신설되었고, 송탄시가 평택군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1986년 1월 과천시(시흥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행정 구역이 되었고, 같은 날 안산시(화성군과 시흥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행정 구역이 되었고, 평택시(평택군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1986년 남양주군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어 남양주군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1989년 1월 김포군 계양면 일원이 인천직할시 북구에, 용진군 영종면, 용유면 일원이 인천직할시 중구에 각각 편입되었고, 같은 날 군포시와 의왕시가 시흥군에서 분리되었고, 시흥군의 나머지는 군내 모든 읍, 면을 폐지하고 시흥시로 승격되었고, 동년에 하남시가 광주군에서 완전히 분리 신설되었고, 이 날 오산시가 화성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행정 구역이 되었고, 성남시는 경기도의 첫 번째 특별시가 되었고, 1992년 2월 고양군이 군내 모든 읍, 면을 폐지하고 현재의 고양시가 되었고, 1995년 3월 용진군과 강화군 전역, 그리고 김포군 검단면(현재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이 인천광역시에서 편입되었고, 1996년 3월 용인군 파주군 이천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로 승격되었고, 1998년 4월 안성군, 김포군이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 김포시로 승격되었고, 2001년 3월 광주군과 화성군이 각각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시, 화성시로 승격되었고, 2003년 10월 양주군과 포천군이 각각 양주시, 포천시로 승격되었고, 2005년 10월 용인시가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를 설치해 경기도의 7번째 특별시가 되었고, 2007년 2월 의왕시가 한자 표기를 儀旺에서 義王으로 바꿨고...

그사이 인구는 274만여명(1960년)에서 1,150만여명(2010년. 경기남부 856만여명. 경기남부 296만여명)으로 늘었다(중간에 인천직할시가 분리되면서 그 인구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전체 증가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특히 남부에서.). 서울과 인천의 독립이 있었지만, 경기도 인구는 현재 남한인구의 1/4이고,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은 절반을 넘는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의 '과밀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경기지역의 아메바컬처는 일종의 '아메바컬처 amoeboid culture'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지역 간의 이합집산과 인구이동, 도시/신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DMZ, 시화호, 미군기지 이전 등의 여러 이슈는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예술적 상상력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슈들이 이면에 자리한 토착인구의 향토성 상실, 농촌문화 붕괴, 노동/노동자 현실, 분단과 생태, 환경, 강제이주 등도 주요 소재가 되었다. 소설가 이문구의 『우리동네』연작(1977~1981)은 경기도 화성에서 집필되었는데, 생존의 기반을 상실해가는 농촌과 문화변동을 날카롭게 새긴 작품이었고, 화가 민정기가 1980년대 후반 양평으로 이주한 뒤 보여준 작품들은 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신도시 아파트단지과 침탑들의 기세였다. 홍성담은 고양 일산에서 월드컵 세대들의 문화적 변혁 현상을 그렸고, 현재는 안산에서 시화호 관련 생태운동을 펼친다. 수원의 [컴아트 그룹]은 1990년대 초중반 한중일을 가로지르며 실험예술을 펼친바 있고, 1979년 탄생한 '안드로메다미술연구소'는 탈지역, 탈경계를 지향했던 '지구아트'의 발화소 역할을 했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추리예술운동은 21세기 벽두의 첨예한 현장참여예술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경기지역은 술한 예술가들에 의해 '인터로컬'의 경유지였고 그 현상이었으며, 현재도 그것은 지속되고 있다.

### 아메바컬처로서의 소집단활동

반세기 동안 쉽없이 변화했던 경기도가 아메바운동과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술가들도 경기지역을 굽이켰다. 어떻게 소통하면서 서로의 이슈를 나눠야 할 것인가 고민했고, 그 고민의 실천은 삶의 정착과 작업실 거주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로 나타났다. 아메바컬처란 타지역과 달리 경기지역이 특수하게 보여준 이합집산의 지형도와 그 내부를 구성했던 예술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경기도와 더불어 변화했던 서울과 인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서울과 인천, 두 지역의 예술가들이 그 지역으로 수렴되지 않고 경기도와 연동하는 것은 그곳이 경기도의 일부였으며, 경기도와 맞닿아 있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경기도에 작업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집단 활동은 아메바컬처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인데, 1970년대에 형성되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가장 왕성하게 전개되었다. 현재의 행정중심지역 중에서 예술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두 지역을 살펴볼 것이다.<sup>1)</sup> 앞서 언급했듯이 1981년에 인천이 분리되기 전까지 경기도의 예술 활동은 주로 인천과 수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에 분리되기 이전까지의 인천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소집단 활동사와 관련된 다른 지역과 구체적 활동내역은 『경기도 근, 현대 소집단 미술 활동의 흐름 연구』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에선 대략적인 연혁만을 정리한다.

### 인천

1946년에 [인천미술동인회]라는 최초의 미술단체가 발족했다. 1947년에 [인천미술인협회]가 결성되었다. 1948년, [문화단체총연합회]산하 인천미술협회가 결성되었고, 인미협은 1952년 [대한미술협회]가 생길 때까지 경기도 미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인미협은 1981년까지 경기도 지부로 활동했다. 1954년 [인천미술협회]가 결성되었다. 1969년 미술평론가 이경성의 발의로 [오소회]가 발족, 결성되었다. 인천 작가들이 주축이 된 [현대미술상황]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1980년 젊은 작가들의 파격적인 작품으로 인천미술계의 일대 사건이 된 <현대미술상황-인천>전을 개최했다. 1985년에 [지평]이 창립되었다. 이 그룹은 현실과 역사에 대한 예술의 참여와 시대인식을 자각하며 '비판적 리얼리즘'을 채택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6년, [인천청년작가회]가 결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지역 내에 위치한 공단이나 빈민지역과 같은 현장을 중심으로 실천적 미술운동을 펼쳤다. 최근 인천은 인천문화재단 내 '인천아트플랫폼'개관과 더불어 레지던시프로그램을 가동시켰고, 민간영역에서는 《스페이스 빔》의 활동이 크다. 그 외에도 <노동미술>과 같은 1980년대의 정신을 잇는 전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미술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황해문화』를 비롯한 다수의 담론지가 출간되고 있는데, 이는 인천지역의 문화담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수원

1964년 3월 [미술협회 수원지구회]가 결성되었다. 1978년 12월 수원 최초의 본격적인 소집단인 [경기청년작가회]가 결성되었고, 1979년 4월에 창립전을 개최하였다(경화식 권용택 김인겸 김철규 남부희 박승남 배형경 백일현 이봉순 이선열 이종관 최용락 허상 참여). 1979년 12월 [포인트, 시점시점]이 창립되었는데, 회원으로 백종광 장영국 최춘일 등이 참여하였고, 1980년 전시에 이억배 박찬웅 문석배 강문수 정길

1) 이에 대해선 경기문화재단이 2004년에 『기초연구2004-04』로 추진한 『경기도 근·현대 소집단 미술활동의 흐름 연구』(책임연구 박영택, 참여연구 민병직)를 참조하기 바라며, 이번 전시기간 중 2004년 이후의 활동을 보강하여 증편, 복간할 예정이다. 행정중심지역별 타지역 사례는 이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수가 합류하였으며 1983년에 [시집시점]으로 개칭하였다. 이들은 [경기청년작가회]의 뚜렷한 경향성 없음을 비판하고, 현대미술에 바탕을 둔 의식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1985년 [시작회]가 창립되었으며 경홍수 김성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백종광 이석기 이윤숙 등이 참여하였다. 이후 경홍수 백종광이 탈퇴하고 어호선 김갑식 임병숙 김영섭 김영철 한기백 황민수 등이 참여하였다.

[경기현대작가회]는 다양한 미학적 입장과 실험정신으로 현대적 표현양식과 조형성을 추구했는데, 김석환 김성로 김용희 김중 김철규 박미자 박중현 백원기 백일현 백종광 우무길 이미혜 주영광 전원길 허중수 홍오봉이 참여하였다. 김석환 황민수 홍오봉 등이 결합하여 [킵아트]그룹을 결성하였다. 1991년 [수원구상작가회]가 결성되었는데 이후 [경기구상작가회]로 개칭하였다. 참여작가들로는 김학두 권대균 남부희 김영섭 김주영 조완형 이석기 서해창 조진식 이종관 한기백 최현식 강상중 김수현 등이다. 1988년 [경기조각회]가 결성되었다. 1996년 이윤숙 박유찬 곽동기 구자영 김래환 김유미 박근용 백종영 엄종명 우무길 윤상화 허중수 황병광 등이 [수원조각회]를 결성하였다. 1982년 1월에 [일구팔이일이회]가 창립되었는데 여성 미술인으로만 구성된 그룹이었다. 최경미 박충분 이윤숙 최순용 이미정 최순희 강미영 이숙 심언순 박유찬 현경원 황은하 등이 참여하였다. 1982년에 [성목회]가 창립되었다. [성목회]는 수목의 현대적 수용을 고민하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7년 민주항쟁을 계기로 1988년에 미술동인 [새벽]이 결성되었다. [새벽]은 [수원문화운동연합]내 시각예술위원회 활동의 영향을 받아 결성된 것이다. 문예실천을 지향하며 노동미술, 일반인 대상의 미술교육, 전문창작집단 지원의 미술운동을 펼치며 걸개그림, 벽화, 영정제작, 생활미술을 전개하였다. 김영기 주영광 이달훈 최익선 박태균 이병렬 박준모 양순희 한인규 손문상 이주영 박경수 서동수 양혜영 황호경 신경숙 최춘일 등이 참여하였다. 1989년 첫 전시 <오늘 이 땅>전, 1990년 <정치·정치·정치...>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에는 이주영 황호경 신경숙 구분주 이오연 김영기 차진환 류우중 주영광 최춘일 박경수 권용택 양혜영 박태균 손문상 이병렬 최익선 서동수 등 33명이 참여하였다. [새벽]은 1991년 [수원미술인협의회] (이하 수미협)로 재결성 되었다. 수미협은 생활미술분과, 조소예비분과, 만화분과, 사진분과로 세분화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노동자문에 활동가 조직인 '노동미술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이들은 '수원천 살리기 운동', '수원시민 환경 한마당', <전국환경미술제>, <수원 200년 역사화>, <남수문 목원 걸개도>, <일하는 사람들>, <4인 판화>전 등을 개최하였다. 1996년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 역사화>전은 지역미술을 고민해 온 도내 지역미술인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그들은 수원 안양 성남 평택 안성 여주 등지에서 이길범 권성택 주영광 신경숙 김석환 김중 양혜영 박중훈 이오연 천명철 기노철 홍사계 임종길 김영기 이선옥 황영식 박요아 안상복 조용상 최기운 김도근 백진원 이병철 김태현 나정태 남동호 이화섭 유구연 박수인 류연복 조성락 이효병 정도용 류충렬 서중훈 김운성 김서경 서동수 박경수 류승우 신동한 이달훈 등이다.

1990년대 가장 주목할 만한 그룹은 [킵아트]이다. 또한 [시작회]에서 활동한 김성배는 [안드로 메다미술연구소]와 [수리미술연구소]를 통해 실험미술을 모색하고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윤숙 전원길 이경근 황민수 김석환이 그들이다. [킵아트]는 1990년 1월 <다섯 칸>전을 계기로 발족하였다. 이경근 김석환 허중수 황민수 홍오봉 등이 참여한 <다섯 칸>전은 퍼포먼스와 설치미술이 다수였다. [킵아트] 그룹은 1990년대에 제기된 포스트모더니즘과 기존의 민중미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세계화를 통한 지역성의 실현이라는 선구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새로운 예술형태를 '교감예술Communication Art'로 명명하고 '모든 세계와의 대화'를 주장하였다. <교감예술제>는 행위 및 설치미술을 포함하여 미술 문학 음악 연극 등 장르간의 벽을 허물고 통섭한 총체적 예술행사였다. [킵아트]그룹은 1993년 중국과의 실험

예술 교류제인 <장안문에서 천안문까지>, 1994년 <북경교감예술제>를 개최했고, 1996년 <수원국제교감예술제>, 1998년 <국제교감예술제>를 진행하였다.

1990년을 전후로 [슈룹]이 결성되었다. 김성배 이윤숙 강성원 도병훈 전원길 등이 주축이었다. [슈룹]은 1988년 김성배를 중심으로 개소한 [수리미술연구소]가 전신이다. 이들은 <융합 21세기>, <맨백-토>, <쌀·보리·콩>전 등을 개최하였다. [슈룹]은 광고산 문수봉 관악산 인왕산 치악산 백운산 설악산 지리산 등을 답사하며 그 체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전을 개최하였다. 1999년에는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백두대간을 종주한 뒤 <백두대간>전을 열기도 하였다. 2001년에는 <내가 서있는 자리>전을 통해 서해안 바닷가와 맞닿은 경기도 화성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이들의 미학적 이념은 "우리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문화를 아우르는 예술의 기氣 회복운동으로 보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정체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2003년에 <경중가인>전을 개최했다. 그의 수원지역의 소집단으로는 [옵니버스]와 [독립작가연구회] 등이 있다.

### 여섯 개의 대안공간과 다중적 활동

도내 대안공간은 현재 여섯 곳이 운영 중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1999년을 기점으로 <대안공간 루프>와 <대안공간 풀>, <대안공간 사루비아 다방>, <쌈지스페이스>(이상 서울), <대안공간 샘>(부산. <대안공간 반디>의 전신) 등이 생겨나면서 대안공간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경기도에는 2002년에 문을 연 안성의 <대안공간 소나무>와 안양의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가 시초였다. 석수시장 내에 등지를 튼 <스톤엔워터>의 활동은 작은 갤러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현안에 예술적으로 개입, 실천함으로써 지역 대안공간 활동의 전범이 되고 있다. <안양천프로젝트>는 그 사례이고, 현재 진행 중인 '석수시장프로젝트-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재래시장과 예술을 접목시킨 획기적인 발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 안양의 석수시장과 남한의 지역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리고 레지던시는 이제 국가 경계를 넘어 '인터시티Inter-city' 혹은 국제적 인터코컬의 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점은 수원의 소집단 활동에 참여했던 작가가 자기확자인 박찬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안공간 소나무>도 수원의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충남 공주의 '자연미술운동'에 가담했던 작가 전원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개조해 전시공간을 꾸렸고, 탁 트인 자연공간을 이용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그의 동반자이자 동료인 최예문의 교육프로그램 기획은 안성지역의 예술가들을 네트워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술농장프로젝트」와 「나는 예술가를 만나러 안성에 간다」는 이곳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미술농장프로젝트」는 [슈룹]과 [YATOO]<sup>2)</sup>에 참여한 온 전원길이 자연미술의 미학을 넓게 공유하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는 '야투' 멤버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초대되고 있다. <...안성에 간다>는 안성에 흩어져 있는 미술가들의 작업실과 안성 시민을 잇는 가교적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대중적 호응 못지않게 작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부천의 <대안공간 아트포럼 리>는 2003년에 개관했고, 주로 현대미술 전시를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1970년대에 설립된 '아트포럼 리'(설립자 이상덕)가 모체였다. 대안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이들은 '예술과 비예술의 접속', '주류와 대항의 접속', '오늘과 내일의 접속', '산과 바다의 접속', '우주공간과 40여명의 접속' 등 '접속'을 컨셉으로 활동의 지향점을 내세우며 신진작가 발굴과 새로운 조형적 실험에 대한 공간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최근 <아트포럼 리>는 교육프로그램을

2) 충남 공주의 금강백사장에서 '자연미술'을 표방하며 1981년에 창립한 단체이다. 현재까지 공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계절연구회'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 '야투'는 농구용어이기도 하지만, '들에서 던지다'라는 뜻의 '野投'를 미학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들=자연'이고 '던지다=표현'을 뜻한다. 자연에 나가서 예술적 표현을 한다는 뜻.



새롭게 강화하고 나섰는데 「미술커뮤니티 아:터 ARTER」가 그것이다.

《대안공간 눈》은 수원 미술활동에서 큰 역할을 해 온 조각가 이윤숙이 만든 것이다. 이 공간은 이윤숙의 실험 작업장이었으며, 한옥 그대로의 공간성을 살려 지역 미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장 역동적인 미술 활동이 있었음에도 변변한 갤러리 하나 없는 수원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공간은 지역 미술인들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기대 수원대 협성대 등 인근 대학의 작가 지망생과 젊은 작가들에게 활동의 첫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 매우 크다. 물론 수원미술전시관이 수원 미술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공간일 수 있겠지만 보다 실험적이고 자유롭게 전시하기에는 ‘눈’이 제격이다. 이윤숙은 ‘눈’ 외에도 화성에 《내건너 창작촌》을 오픈하여 레지던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는 안산에 있고 백기영, 유승덕의 주도로 2007년 9월에 문을 열었다. 경기문화재단의 유휴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영위원 체제로 운영해 왔고, ‘사회적 기업’을 시도했으며 현재는 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안산의 원곡동은 흔히 ‘국경 없는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의 국가적 색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술가들은 이러한 다국적 색채를 ‘리트머스’라는 상징으로 묶어 내는 예술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리트머스》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원곡동이라는 지역의 현장성을 지역에 가두지 않고, 탈국가적 지역성으로 자주 월경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스톤앤워터》의 경우처럼 이들의 ‘인터로컬’은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세계의 지역’인 것이며, 그러한 사유를 통해 재기발랄하고 재치 만발한 기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갓 2년을 넘긴 《문화살롱 공》은 행위예술과 실험미술, 설치미술 등 전위적 활동에 가담해 온 박창식의 노력에 의해 탄생했다. 그는 ‘스폰치’ 그룹을 가동해 왔고, 「‘섬’ 프로젝트」와 같은 독특한 전시를 기획했다. ‘섬’은 경기북부에 소재한 빈 집을 소재로 예술가들이 예술적 사면의 주술을 펼치는 프로젝트였다. 《공》은 지난 해 「재인폭포상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는 경기북부의 수물 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대안공간의 지역적 실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획이었으며, 여기에는 지역의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했다. 또한 이곳의 전시는 의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타지역의 미술인들을 매칭하는 일종의 ‘타이틀전’을 보여줌으로써 인터로컬의 지역적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 경기도의 힘

‘경기도의 힘’은 무엇일까? 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이 경기도의 예술적 힘이고 에너지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저 많은 활동의 층위 어디에도 뚜렷하게 잡히는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이 잡히지 않는다. 경기도는 과거나 현재에도 경기도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에 “경기도의 힘은 이것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가변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술가들은 고정되지 않고 현재를 흐르며, 그 흐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다변적이고 다층적인 것이야말로 예술의 힘이고 창조적 동인이라 할 때, 경기도의 힘은 명확해진다. 경기도미술관은 지역과 지역을 가로지르고, 작가와 작가를 네트워크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다. 여기에는 도립미술관인 경기도미술관이 단원 김홍도의 고장에 문을 연 사연도 한 몫 한다. 전시는 그것들을 재구성하는 ‘아트 맵’으로 현장화 되었다. 이번 전시의 ‘아트 맵’을 통해 경기미술의 위상과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Gyeonggi Province ; Platform of Inter-Local Networks

; Traversing Local Communities, Local Characteristics, and Local Arts

Gim Jong-gil / curator

Each year the Gyeonggi Art Project gathers together themes of political, economic, societal, and cultural identity, found within the perspectives of aesthetic issues. This year the exhibit focuses on artists characterised by notions of the local. Communities of artists can be found throughout all of Gyeonggi Province's 31 cities and counties. Some of them were born here, but the majority has been drawn to Gyeonggi from other area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the number of artists living here continues to grow. Many artists' residence in Gyeonggi Province is probably due to the fact that they can easily access to the central city of Korea, Seoul in every aspect. That is to say, since it geographically surrounds Seoul, it is a location that doesn't confine their practice, but instead allows them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exhibit their work. It is a lot cheaper to rent a studio than in Seoul, and traffic is much less of a problem in most areas. As well as being surrounded by nature, a lot of locations have been developed as 'creation villages' for artists, such as Seonjong in Yangpyeong, or Ilsan, Paju, and Anseong. These kinds of factors make Gyeonggi one of the best places for artists to work. The various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in Gyeonggi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s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which began to develop a long time ago.

### Gyeonggi Area of Inter-local Networks

There are unique geographic characteristics within Gyeonggi Province, qualities which depend on their geopolitical locations within the North, South, East and West.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for instance, is home to a number of relics and historical sites from the old territory of Goguryeo (an ancient Korean kingdom, founded in 37 BC by Jumong), while its areas adjacent to the Demilitarized Zone have more military camps and facilities, and despite not being very high, it is also known for its rugged mountain ridges. Scattered communities of artists can be found working throughout Uijeongbu and Dongducheon, whilst Goyang and Paju are quite active comparatively. Paju and Goyang are physically close to Seoul, and benefit from a well-developed transport system between them. The Paju Heyri art village is designated as an art district, while for several years now artists living in Gusandong, Ilsan, Goyang have been well known for their open studio programs. Pocheon—home of the Pocheon Asia Art Festival—is beginning to bring to life its vision of an 'art city' by converting a desolate quarry into Pocheon Art Valley.

The Eastern part—which adjoins with Kangwon Province—is well known for its beautiful scenery, with scattered little plains, as well as for its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Yangpyeong presents a lot of advantages for artists to work, geographically as well as regionally. Its western part is close to Seoul, while further inland the eastern area is adjacent to Kangwon. It is especially recognized for its extraordinary landscape and fresh air, and Han River gets divided from it into north and south. It is perhaps for these reasons that the number of artists who began to gather here since the late 1980s has now reached more than 3000.

For a long time now, Yeosu, Icheon, and Gwangju have been famous for rice and ceramics. The outstanding quality of its clay may be a reason that many sculpture artists are drawn to this area. Due to their close proximity to the national highway, cities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are mostly commercial and large-scale. Led by new town developments, the cities of Suwon, Osan, Yongin keep expanding, and the populations keep growing. As a city that is crucial to the distribution of water in the province, Suwon has also played a central role in its politics and culture. The history of development in Suwon is related to the Suwon Hwaseong Fortress, built in the late 18th century by King Jeongjo. The deep and far-reaching history that surrounds the city, and its cultural legacy, led to the formation of clubs in literature and art, such as the Joseon proletariat artists' alliance in the mid-1920s. Since then the subsequent activities of collectives have continued, and since the 1980s, these activities have been in full swing.

To the west of Gyeonggi there are cities located along the coast of the Western Sea, and it therefore characterised as a border area. Incheon was part of Gyeonggi Province before it became an independent metropolitan city in 1981 (it is also worth remembering that Seoul was a part of Gyeonggi Province before it separated to become

a 'Special Free City' in 1946, thereby gaining a status which is equivalent to that of a province. Before Seoul separated from it, Gyeonggi Province was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encompassing both Seoul and Incheon.). When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Gyeonggi contemporary art, we must also consider the art of Incheon prior to 1981.

Ganghwa, Kimpo, Siheung, Ansan, and Hwaseong each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histories as cities. Whereas Ganghwa and Kimpo were located in the northern area of Incheon, close to North Korea, and therefore urbanized comparatively late, Siheung, Ansan, and Hwaseong developed as industrial cities and factory complexes, due to their closeness to the Western Sea, and since the 1990s the cities have begun become more multi-cultural as more immigrant laborers began to settle there. During Korea's period of modernization, Ganghwa and Incheon opened their ports to foreign trade, thereby opening themselves up to contact with the West. The cities therefore played important roles as passageways in the flow of culture, and still play a vital role in this way today. More so than the inland cities, these port-towns have a fascination with the production and practice of intelligent discourses with East Asia, or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e active cultural movements here seem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se regional traits.

Since being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Gyeonggi Province has had to go through a great deal of transformation, in ways that might be compared to the notion of amoeboid movement. After the period of colonial reconstruction and after the modernization policies began operating at full-force, new topographical maps had to be made of the metropolitan area.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these maps have had to be redrawn every three or four years.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Gyeonggi area for these last five decades is not unlike multiple fissions in amoeba. The evidence of these large-scale topographic changes can be seen in the division of Seoul and Incheon, and in the reclamation of the Western Sea bay, as well as in widespread changes such as the urban expansion of new town developments, in the industrial districts, or in the opening of new roads.

During this time, its population increased from around 2,740,000 (in 1960) to around 11,500,000 (in 2010). Despite being separated from Seoul and Incheon, the population of Gyeonggi Province occupies one quarter of the current South Korean population, and takes up more than a half of the metropolitan area. This has caused issues of overcrowding in every area. These amoeboid movements of the Gyeonggi region served as a driving force creating a type of amoeboid culture. Several local issues such as the reorganization among regions, population shifts, new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the DMZ, the Sihwa Lake development, and the relocation of the US armed forces, have caught artists' attention and imagination. Other crucial subjects that have emerged include the loss of locality experienced by residents, the collapse of culture specific to agricultural areas, the realities of labor/laborers, division (of the country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and ecology, environmental issues, and forced relocation. Throughout the 1980s, 1990s and 2000s, the Gyeonggi region has played a vital role as a place that artists look to for its inter-local networks, and this is still very much the case now.

#### Amoeba Culture- Activities of Collectives and Alternative Space

For the last half century, just as the Gyeonggi Province has restlessly changed like an amoeba, artists in the region have also experienced a great deal of change. They were concerned with way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bout the issues they were facing, and put strategies for discussion into practice by attempting a variety of projects shaped by the places where they resided and where their studios were located. Amoeba culture refers to these artistic activities responding to the repeated reorganization of the area's topography, which has been seen particularly in the Gyeonggi region, but also includes Seoul and Incheon, which like Gyeonggi have also seen dramatic change.

Artists from the two areas, Seoul and Incheon,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discourse surrounding Gyeonggi, because they were formerly part of the region, are now adjacent to it, and many of the artists now have their studios in Gyeonggi. The activities of collectives serve as a gauge to measure amoeba culture. A large portion was formed in the 1970s, and were intensively active in the 1980s and 1990s.

Six alternative spaces are currently in operation. The year 1999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ra of the alternative space in Seoul and Busan, with the appearance of Alternative Space Loop, Alternative Space Pool, Project Space SARUBIA, Ssamzie Space (all based in Seoul), and Alternative Space Seom (the former incarnation of what is now Alternative Space Banded, based in Busan.) Meanwhile in Gyeonggi Province, Alternative Space Sonahmoo, and Supplement Space Stone & Water both launched in 2002, in Anseong and Anyang respectively. Stone & Water, located

in Seoksu Market, rather than being restricted by the physical space of its gallery, began engaging in the current issues within its neighbourhood and local area, thereby becoming a model for regional alternative spaces. Among examples of its work are the Anyangcheon Project, and the Seoksu Market Project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which is still active, and has gained nationwide attention due to its unconventional idea of combining the traditional market with contemporary art. The project is composed of a variety of exhibitions, educational programs, and residencies which link Seoksu Market in Anyang to other areas in South Korea, as well as overcoming national borders, and putting into practice concepts of the inter-city or international inter-local network. The ability to realize these projects comes down to Park Chan-eung, artist and organiser who participated in collectives in Suwon.

Jeong Won-gil contributed a lot in the creation of Alternative Space Sonahmoo as well as Nature Art Movement of Gongju, ChungNam Province. Park converted his studio into an exhibition space, and then undertook a variety of projects utilizing open sceneries. Park's partner, and colleague, Choi Ye-mun made great contributions towards the networking of artists in Anseong area through his education program. Art Farm Project, and I Go to Anseong to Meet Artists are among the programs that they initiated. The Art Farm Project was developed by Jeon Won-gil – who had participated in previous projects such as Shurup (a Korean word meaning umbrella) and YATOO – and was concerned with how to share the aesthetics of natural art, and ways that it might be accessed easier here. YATOO members, as well as a number of artists from other areas took part in the Art Farm Project. I Go to Anseong to Meet Artists acted as a bridge linking artists' studios, which were scattered throughout Anseong, with its citizens. This project had a positive response from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from artists.

Alternative Space Art Forum Lee(李) opened in Bucheon in 2003, mostly focusing on exhibiting contemporary art. By the time it had transformed itself into an alternative space, Art Forum Lee was working on the promotion of newly emerging artists, providing spaces for the exploration of forms and for realizing concepts of encounter—such as the encounter between art and non-art, between mainstream and the alternative, between today and tomorrow, between mountain and sea, or encounters between universal space and around 40 pyeong (132 m<sup>2</sup>) space. Art Forum Lee has also recently developed a new educational program, Art Community ARTER.

Alternative Space Noon was founded by Lee Yun-sook, a sculptor who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rt of Suwon. The space had been for Lee and her husband after getting just married,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its traditional architecture were lauded by regional artists. This space is a critical support for Suwon's art, as despite the dynamic cultural and political activities in the city, Suwon has no recognizable gallery system. It has a particularly significant role in offering initial opportunities to young and emerging artists from the region as well as from nearby universities such as Gyeonggi University, Suwon University and Hyeongsung University. Suwon Art Exhibition Hall may serve as a more significant space for regional artists, but Noon allow for exhibitions of more experimental art, and for working without as much restriction. Lee opened Naegeonneo Changjakchon (meaning 'creative village across the creek') as a residency program in Hwaseong.

Community Space Litmus opened in Ansan in September 2007, led by Paek Gi-young, and Yoo Seung-deok. It was launched by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s part of a project activating available but empty space, and at present it is working on independent activities. It operates with a few operating members, and has attempted to develop as a social enterprise, and at present it is registered as a corporate body. Wongok-dong in Ansan was known as a village without national borders, due to the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mmigrant laborers who have settled there. Artists from the region promote artistic activities that bring together the multicultural strata through the symbolic idea of litmus. Its activities are noteworthy in the way that the artists are not restricted to the region of Wongok-dong, but open to attempts to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s seen in Stone & Water, these inter-local networks claim to advocate 'a global local space which traverses Gyeonggi Province', featuring an array of whimsical yet clever projects.

Culture Salon Gong, which has been running for two year now, was created thanks to the efforts of Park Lee Chang-shik, who previous involvement with a range of experimental activities including performance art, experimental art and, installation art. Park Lee led the group 'sponge', creating remarkably unique exhibitions such as the Seom Project. Seom (a Korean word meaning 'island') was a project in which artists visually undertake shamanistic acts in the empty houses of a neighbourhood. Gong featured Jaein Pokpo Shop, a project for the flood basins of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t was exemplary in the way it opened up a strategy to take the art of an altern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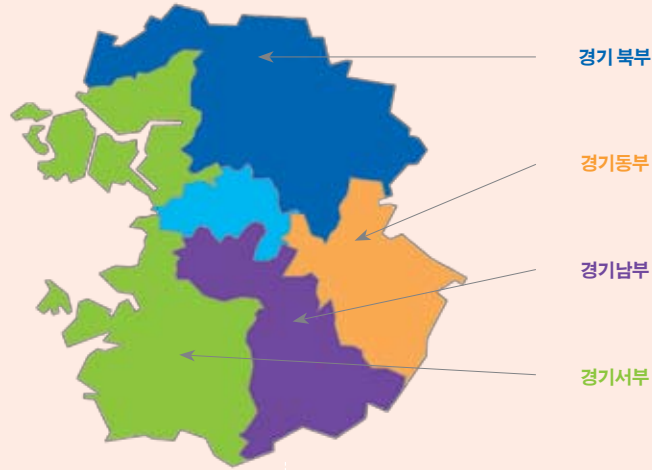
space to a region, whilst also managing to bring together the participations of artists working across a large variety of media. In addition,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Uijeongbu, the project also featured artists working in other areas, using the form of a 'title exhibition' to show its regional intervention of inter-local networks.

#### **Him of Gyeonggi-do**

What is the 'Him of Gyeonggi'? All of the previously mentioned ideas relate to the artistic strength and energy of Gyeonggi Province. However, it is still somewhat difficult to grasp a single tangible identity from these numerous levels of activity. Even though Gyeonggi Province has never, in itself, been changed, its incessant flexibility makes hard to obviously discern the power of Gyeonggi. Artists never stay in one place, ever-flowing in the present tense, like a stream that never stops running. However those multilateral and multilayered things are what makes for the power of art and creative motivation, and this itself is obviously the Him of Gyeonggi-do. With this exhibition,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traverses from region to region, and across networks between artists. It is noteworthy that the Provincial museum is located in the birthplace of Danwon Kim Hong-do. An exhibition is brought to life, through a map of art which recomposes them. Through this exhibition's mapping of art, you may see the current status, and the substantial being of Gyeonggi art.

# 경기아트 맵 구현을 위한 전시 공간연출과 작가들, 아카이브

참여 작가들은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서부 등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졌다. 전시공간은 경기지도와 오버랩되었으며, 작가들의 작품은 권역별 전시공간에 배치되었다. 야외 데크에 설치된 조각 작품은 오버랩 된 권역공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작가는 지역별 권역에 소속된다. '야외'라는 환경을 고려하여 관객 참여가 높은 작품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대안공간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시공간 안에서 독립된 섬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다. 그것은 집의 형식으로 제작된 파빌리온들이다. 지도의 중앙이자 전시공간의 중앙에 단원 김홍도 영인본 작품을 배치함으로써 경기도미술관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소전시실과 복도에는 참여 작가 아카이브와 경기 현대미술 소집단 활동 아카이브를 배치했다. 또한 2007년부터 기획된 '경기미술프로젝트' 전시자료를 마지막 파빌리온에 배치하여 전시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경기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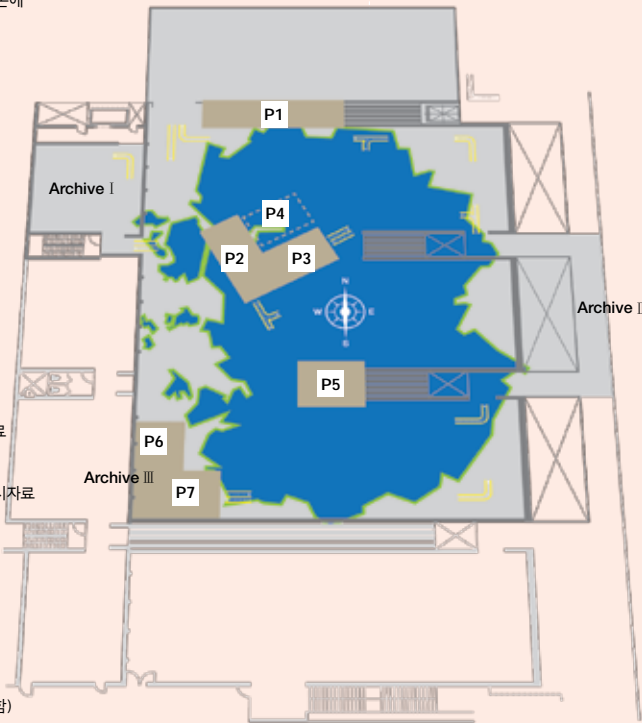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서부

## 2F

Archive I : 경기 현대미술 소집단, 대안공간 자료  
Archive II : 참여작가 자료  
Archive III : 경기미술프로젝트 2007-2010 전시자료



### PAVILION

- P1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
- P2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P3 대안공간 눈
- P4 대안공간 아트포럼 리 (파빌리온 없이 작품이 하나의 공간을 형성함)
- P5 문화살롱 공
- P6 커뮤니티 스페이스리트머스
- P7 Archive Room

## 북 北

- 구분주 포천
- 김병철 남양주
- 믹스라이스 남양주
- 박불똥 남양주
- 박이창식 의정부
- 박준식 남양주
- 배형경 가평
- 송필 남양주
- 신동희 양주
- 양화선 남양주
- 이셋별 동두천
- 임승오 포천
- 정효양 포천
- 조성묵 양주

- 신성희 안산
- 신원재 화성
- 심정수 고양
- 안재홍 화성
- 양정수 안산
- 오상욱 고양
- 윤석남 화성
- 이상수 안산
- 이수홍 파주
- 이원석 고양
- 이윤기 화성
- 이인 파주
- 이인철 파주
- 이형우 파주
- 임승천 화성
- 전신덕 고양
- 정문규 안산
- 정현 고양
- 조강훈 고양
- 주재환 고양
- 차현주 고양
- 최문수 김포
- 최승호 고양
- 하중현 고양
- 허재 안산
- 호문기 파주
- 홍선웅 김포
- 홍성담 안산
- 홍순명 파주
- 홍오봉 부천

- 김범석 여주
- 김선우 이천
- 김영원 광주
- 김용익 양평
- 김인순 양평
- 김일해 광주
- 김태현 광주
- 나종희 이천
- 민정기 양평
- 박승모 양평
- 송용민 양평
- 송창 광주
- 신광욱 광주
- 양원종 광주
- 이동표 양평
- 이영섭 양평
- 이재호 양평
- 이종빈 양평
- 정하웅 양평
- 최경태 양평
- 최석운 양평
- 최태훈 이천
- 강경구 성남
- 강상중 수원
- 공기평 용인
- 구본창 성남
- 권용택 수원
- 김건주 용인
- 김도균 용인
- 김익 안성
- 김영수A 안성

- 김재홍 안양
- 김해두 수원
- 김해심 성남
- 남경민 의왕
- 남궁원 성남
- 류연복 안성
- 박득순 과천
- 박응국 수원
- 서정국 용인
- 성동훈 안성
- 슈름 수원
- (김성배, 도병훈, 이윤숙)
- 신재남 성남
- 원인종 의왕
- 이강은 안양
- 이관우 과천
- 이운엽 안성
- 이재삼 과천
- 이중근 성남
- 이홍덕 용인
- 임근우 의왕
- 장혜홍 수원
- 전원길 안성
- 정복수 안성
- 정정엽 용인
- 제정자 용인
- 차기울 용인
- 최예태 성남
- 최정미 과천
- 한운성 용인
- 한진섭 안성
- 홍명섭 용인

황은화 수원

## 서 西

- 고경호 고양
- 고산금 고양
- 권석만 고양
- 김상구 고양
- 김상균 고양
- 김석환 평택
- 김영수B 김포
- 김와곤 김포
- 김유섭 고양
- 김재석 부천
- 김찬일 파주
- 김홍식 고양
- 박은태 고양
- 설총식 고양
- 손장섭 파주

- 이인철 파주
- 이형우 파주
- 임승천 화성
- 전신덕 고양
- 정문규 안산
- 정현 고양
- 조강훈 고양
- 주재환 고양
- 차현주 고양
- 최문수 김포
- 최승호 고양
- 하중현 고양
- 허재 안산
- 호문기 파주
- 홍선웅 김포
- 홍성담 안산
- 홍순명 파주
- 홍오봉 부천
- 김근중 양평

## 남 南

- 송창 광주
- 신광욱 광주
- 양원종 광주
- 이동표 양평
- 이영섭 양평
- 이재호 양평
- 이종빈 양평
- 정하웅 양평
- 최경태 양평
- 최석운 양평
- 최태훈 이천
- 강경구 성남
- 강상중 수원
- 공기평 용인
- 구본창 성남
- 권용택 수원
- 김건주 용인
- 김도균 용인
- 김익 안성
- 김영수A 안성

## 동 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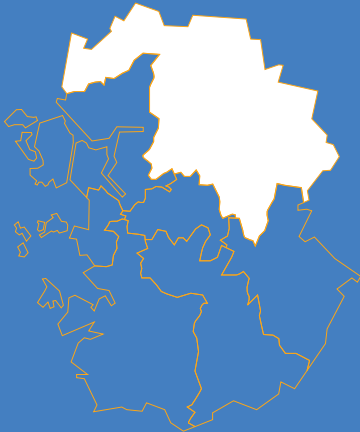
## 경기+

- 박찬경 고양-서울
- 정재철 과천-서울

# 북北

경기 북부의 경우 고구려의 옛 영토였기에 유물/유적지가 다량 소재하고 있고(백제의 유적 또한 적지 않다), DMZ에 인접할수록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또한 많으며, 산세가 높지 않으나 험하다. 예술가들은 의정부와 동두천, 고양, 파주에 흩어져 있고 그 중 파주와 고양에 밀집되어 있다. 파주와 고양은 서울과 지리상으로 가깝고,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다. 파주 헤이리의 예술마을은 '예술지구'로 지정되었고 고양시 일산의 구산동 일대 작가들은 몇 해 동안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다. <포천아시아미술제>를 개최한 바 있던 포천은 현재 패채석장을 '포천아트밸리'로 탈바꿈시키면서 예술도시의 꿈을 현실로 옮기고 있다. 고양과 파주는 권역별로 파악할 때는 서부권역에 들어가거나 북부권역과 겹쳐지기도 한다. 의정부에 문화살롱 (공)이 있다.

경기북부 :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가평군, 연천군



# 북北

- 구분주 포천
- 김병철 남양주
- 믹스라이스 남양주
- 박불동 남양주
- 박이창식 의정부
- 박준식 남양주
- 배형경 가평
- 송필 남양주
- 신동희 양주
- 양하산 남양주
- 이새별 동두천
- 임승우 포천
- 정호양 포천
- 조성욱 양주

- 신성희 안산
- 신원재 화성
- 심정수 고양
- 안재홍 화성
- 양정수 안산
- 오상욱 고양
- 윤석남 화성
- 이상수 안산
- 이수홍 파주
- 이원식 고양
- 이윤기 화성
- 이인 파주
- 이인철 파주
- 이형우 파주
- 임승헌 화성
- 전신덕 고양
- 정문규 안산
- 정현 고양
- 조강준 고양
- 주재환 고양
- 차현주 고양
- 최문수 김포
- 최승호 고양
- 하종현 고양
- 허재 안산
- 홍문기 파주
- 홍선웅 김포
- 홍성담 안산
- 홍순명 파주
- 홍오봉 부천
- 김범석 여주
- 김신우 이천
- 김영원 광주
- 김응익 양평
- 김인순 양평
- 김일해 광주
- 김태현 광주
- 나종희 이천
- 민정기 양평
- 박승모 양평
- 송응민 양평
- 송창 광주
- 신광욱 광주
- 양원종 광주
- 최경태 양평
- 최석운 양평
- 최태훈 이천
- 강경구 성남
- 강상중 수원
- 공기평 용인
- 구본창 성남
- 권용택 수원
- 김건주 용인
- 김도균 용인
- 김익 안성
- 김영수A 안성
- 김재훈 수원
- 김학우 수원
- 김해실 성남
- 남경민 의왕
- 남궁원 성남
- 류연복 안성
- 박득순 과천
- 박종국 수원
- 서정국 용인
- 성동춘 안성
- 슈름 수원
- (김성배, )
- 도병춘, )
- 이운숙)
- 신재남 성남
- 원인종 의왕
- 이강은 양평
- 이권우 과천
- 이운엽 안성
- 이재실 과천
- 이종근 성남
- 이홍덕 용인
- 임근우 과천
- 장혜훈 수원
- 전원길 안성
- 정복수 안성
- 정정엽 용인
- 제정자 용인
- 치기을 용인
- 최예태 성남
- 최정미 과천
- 한운성 용인
- 한진섭 안성
- 홍명섭 용인

# 서西

- 고경호 고양
- 고산금 고양
- 권석만 고양
- 김상구 고양
- 김상균 고양
- 김석환 필택
- 김영수B 김포
- 김아근 김포
- 김유섭 고양
- 김재석 부천
- 김찬일 파주
- 김홍식 고양
- 박은태 고양
- 설홍식 고양
- 손강섭 파주

- 이영희 고양
- 이동표 양평
- 이영섭 양평
- 이종민 양평
- 정하웅 양평
- 최경태 양평
- 최석운 양평
- 최태훈 이천
- 김경구 성남
- 강상중 수원
- 공기평 용인
- 구본창 성남
- 권용택 수원
- 김건주 용인
- 김도균 용인
- 김익 안성
- 김영수A 안성
- 김재훈 수원
- 김학우 수원
- 김해실 성남
- 남경민 의왕
- 남궁원 성남
- 류연복 안성
- 박득순 과천
- 박종국 수원
- 서정국 용인
- 성동춘 안성
- 슈름 수원
- (김성배, )
- 도병춘, )
- 이운숙)
- 신재남 성남
- 원인종 의왕
- 이강은 양평
- 이권우 과천
- 이운엽 안성
- 이재실 과천
- 이종근 성남
- 이홍덕 용인
- 임근우 과천
- 장혜훈 수원
- 전원길 안성
- 정복수 안성
- 정정엽 용인
- 제정자 용인
- 치기을 용인
- 최예태 성남
- 최정미 과천
- 한운성 용인
- 한진섭 안성
- 홍명섭 용인

# 남南

# 동東

- 김근중 양평
- 김영수A 안성
- 홍명섭 용인





**구본주**  
**GU bon-ju**

비스킷 나눠먹기  
*Eating a Biscuit Together*  
브론즈, 나무 bronze, wood  
120×400×160cm  
2003



눈치밥 삼십년  
*To Eat Person's Salt for 30 Years*  
브론즈, 철 bronze, steel  
25×70×70cm  
1999



아빠의 꿈  
*Daddy's dream*  
느티나무, 동선, 동판 zelkova, copper  
65×190×35cm  
2008

**김병철**  
**Kim Byung Chul**

돈만 먹는다  
*Eating Only Money*  
적송, 느티나무 pine, zelkova, 80×42×120cm  
2007



**믹스라이스**

**mixrice**

99년 4월 4일 어느 날

*One Day-April 4, 1999*

혼합재료 mixed media

가변설치 dimension varied

2010



**박불동**  
**Park, Bul-dong**

흥정  
*Bargaining*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45×112cm  
1992



약수  
*Handshake*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45×112cm  
1992



공초  
*A Butt*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45×112cm  
1992





**박준식**

**Park, jun-sik**

위험한 바위

*Dangerous Stone*

람다프린트 lambda print

110×90cm

2009

**박이창식**

**ParkLee Changsik**

엘리제를 위하여 *For Elise A minor*

부평, 퍼포먼스, 2005. 7

Bupyeong, July 2005





배형경

Bae Hyung Kyung

업

Karma

청동 bronze, 230×80×60cm, 2009



송필

Songfeel

BigBan

섬유강화플라스틱, 흑연

FRP, graphite

187×38×38cm

2008

